

대전교도소 종합감사 결과 탄약(권총탄)이 장부 기재와 실제 보유량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, 현재 조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법무부는 '26. 6. 8.(월)~ 6. 12.(금) 5일간 대전교도소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, 이 과정에서 대전교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탄약 중 권총탄(9mm)이 장부에 등재된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에 차이(100발)가 있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.
- 이에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(고위공무원 나급·2급 상당)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(10여명)을 편성, 대전교도소로 급파하여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
- 금번 조사는 탄약의 실제 반출 여부를 중심으로 장부상의 오류 또는 오기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속하고 정확히 진행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기 및 탄약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,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겠습니다. ☑

담당 부서	교정본부 보안과	책임자	과 장	이성호	(02-2110-3450)
		담당자	서기관	양성필	(02-2110-3390)